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여파

이통3사, 3분기 실적 전망 ‘먹구름’

SKT, ‘유심해킹’ 1348억 과징금
위약금 면제 등 더해 부담 가중

KT, ‘소액결제 해킹’ 금전피해 발생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불확실성 ↑

LG U+, 北 해커조직 서버침해 의혹

3분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SK텔레콤은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KT는 소액결제 피해 사태가 터지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실정이 됐다.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특별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지만, 최근 해외 해킹 잡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3분기 통신 3사의 실적에 개인정보 유출이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의 여파로 3분기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고객 보상 비용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9.1% 급감한 579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순이익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8월 한 달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 통신요금 50% 감면 조치와 위약금 면제 비용까지 더해져 부담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는 가입자 이탈과 보상 관련 지출, 정보보안 투자 등으로 하반기 영업실적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부과에 따라 3분기 순이익 적자도 가능한 상황이다. 8월 요금할인에 따른 매



3분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실적에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출 차감과 위약금 면제 비용으로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3분기 과징금을 반영해 올해 순이익 추정치를 5384억원으로 16%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3분기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KT의 경우,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해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비용이 3분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고강도 인력 효율화가 보안 등 기본 역량을 약화시켰다는 비판 속에서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구조조정이 발빠르게 진행된 만큼, 통신망 관리·운영 등 기본역량 전반이 크게 휘청이게 됐다는 까닭에서다.

KT의 새로운 관계자는 이번 소액결제 해킹 사태를 경영진의 잘못이 빚어낸 ‘총체적 참사’라고 비난했다. 고객들은 불안에 떨고 임직원들은 부당한 비난을 받는 상황인데, 이는 허술한 보안 관리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경

영진의 초기 대응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해킹이 KT에 집중된 것은 타사보다 취약한 보안망 때문”이라며, “수익성만 추구한 경영진이 기존 유심 정보 탈취 위험에도 보안을 강화하지 않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로서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뚜렷한 피해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 없이 의혹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에 의한 서버 침해 정황을 제기한 상태로, 아직 정부의 정밀 포렌식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실적과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다.

전문가들은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과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부 조사가 본격화되면 두 회사 모두 3분기 실적 부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업계 전반에 걸친 보안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투자 부담 증가는 3사 모두에게 당연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네이버, ‘컬리N마트’ 오픈 기념 프로모션

100원딜, 반값 특가 등 혜택 제공

네이버는 15일부터 ‘컬리N마트 그랜드 오픈링 워크’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컬리N마트는 지난 4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문을 연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로, 네이버 인기 상품과 컬리의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새벽배송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받을 수 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안정적인 배송과 다양한 상품 셀렉션을 기반으로 빠르게 자리 잡은 컬리N마트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100원딜, 반값 특가, 포인트 적립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컬리N마트에서 한달살기’ 이벤트에서는 재구매 횟수에 따라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최대 8000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는 오후 12시, 2시, 4시 하루 세 차례 특가타임을 운영한다. 정오에는 ‘KF365 1+등급 무항생제 특란 20구’를 매일 1000개 한정 100원에 판매하며, 오후 2시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기 상품을 50% 할인한다. 오후 4시에는 화장지, 물티슈 등 생활필수품을 1+1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주 베테랑 칼국수’, ‘미크 클레버 대구 막창’, ‘이연복의 목란 찜뽕’ 등 인기 식품과 생필품을 최대 43% 할인하는 특가전도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최빛나 기자 vitna@

카카오엔터, 이달 신작 웹툰 4종 공개

로맨스판타지·무협·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로 독자층 확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9월 신작 웹툰 4종을 공개하며 다양한 장르로 독자 공략에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을 통해 9월 화제의 신작 웹툰 4종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작은 로맨스판타지, 무협, 미스터리 스릴러, 육아툰 등 장르를 아우르며 독자층을 확장한다.

카카오페이지에서는 지난 1일 ‘악녀 언니를 구하러 온 용감한 강아지입니다’를 선보였다. ‘악녀의 문구점에 오지 마세요!’ 등 인기 로맨스판타지를 집필한 여로는 작가 원작의 노블코믹스로, 유담·연복 작가의 각색과 푸키 작가의 작화가 더해져 힐링물로 재탄생했다. 공개 직후 로맨스판타지 주간 랭킹 5위에 오르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21일 론칭 예정인 ‘신마대제’는 누적 조회 수 6000만회를 돌파한 은검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노블코믹스다.



소년 부은설이 무림 최강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며, 역동적인 액션신과 묵직한 서사로 무협 팬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웹툰에서는 지난 14일 ‘미대괴담’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시리즈로 제작돼 화제를 모은 ‘악연’ 최희선 작가의 신작으로, 미대 복학생 범행을 둘러싼 의문의 사건과 비밀을 서스펜스 있게 풀어낸 미스터리 스릴러다.

오는 28일 공개되는 ‘멍냥매일리’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21만 명을 보유한 연더랜드 작가의 첫 웹툰이다. 귀여운 캐릭터 ‘멍군이’ ‘냥순이’ 부부와 ‘몽돌이’의 임신, 출산, 육아 이야기를 담아 MZ세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빛나 기자

LG U+, 삼성 TV에 패스트채널 12개 공급

올해 순차적으로 ‘삼성 TV 플러스’서
구독료·시청료 없이 콘텐츠 시청

LG유플러스가 자체 송출 시스템으로 삼성전자 스마트 TV 플랫폼 ‘삼성 TV 플러스’에 FAST 채널(패스트 채널) 12개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9월부터 시청 가능한 채널은 ▲JTBC ▲JTBC2 ▲JTBC4 ▲MBN ▲한국경제TV ▲연합뉴스경제TV ▲매일경제TV ▲MTN 미니투데이방송 ▲캐리TV ▲더라이프2 ▲K비독 ▲아리랑TV 등 총 12개 채널이다. 올해 내 순차적으로 시청 가능하다.

FAST(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는 개방형 OS가 탑재된 스마트 TV에서 구독요금이나 시청료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IP TV,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 OTT와는 달리 스마트 TV와 인터넷만 있다면 광



LG유플러스가 자체 송출 시스템으로 삼성전자 스마트 TV 플랫폼인 ‘삼성 TV 플러스’에 FAST 채널 12개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FAST 채널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고를 시청하면서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 스마트 TV 플랫폼인 LG 채널과 삼성 TV 플러스에 FAST 채널을 직접 송출함으로써 더 많은 시청자와의 접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성 TV플러스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3500개 채널과 6만6000여편의

VOD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자체 송출 시스템으로 FAST 채널을 직접 운영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객이 시청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시간 오류에 즉각 대응해 고객에게 최고의 시청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김서현 기자

NHN, 최애의 아이 퍼즐게임 타이틀 확정

내년 ‘최애의 아이 Puzzle Star’ 출시

NHN은 ‘프로젝트 STAR(스타)’로 알려졌던 인기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기반 퍼즐 게임의 정식 타이틀을 ‘최애의 아이 Puzzle Star(퍼즐 스타)’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게임은 해당 IP를 활용한 첫 공식 게임으로, 일본 내 퍼블리싱은 원작사 카도카와가 담당하며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의 퍼블리싱과 개발은 NHN이 맡는다. 게임은 TV 애니메이션 3기의 방영 일정에 맞춰 2026년 출시될 예정이다.

정식 타이틀은 지난 14일 일본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에서 열린 ‘최애의 아이 서버 페스티벌’ 현장에

서 처음 공개됐다. 이 행사는 애니메이션 최신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러지는 대표적 팬 이벤트로, 이번 타이틀 발표가 현장의 큰 환호를 이끌어낸 핵심 이벤트로 꼽혔다.

‘최애의 아이’는 아카사카 아카와 요코야리 멘고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하며,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방영된 TV 애니메이션이 큰 흥행을 기록했다. 연예계의 빛과 그림자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들은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으며, 2026년 TV 애니메이션 3기 방영이 확정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과 관련한 추가 정보는 공식 티저 사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